

인권정보자료실  
Md1.2

#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2002. 10. 22 (화) 422 시

주최: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

밀알복지재단 /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걷는길벗회 / 희망교육연대 / 하상장애인복지관

주최: 세희문화재단

인권정보자료실  
Md1.2

장애아통합을위한시민연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 일시: 2002년10월22일(화) 오전10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4층



• 순서 •

주제발제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및 훈련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 교수 김성애)	7
사례발표	장애아동 부모의 보조인력 활용 사례 (장애아동 부모 송제연)	27
	인천시 통합교육 보조인력 활동 사례 (사단법인 함께걷는 길벗회 원장 조정일)	35
토론발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의 필요성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회장 정숙자)	55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서울상봉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 이종필)	61
	특수교육 보조교사제(인력) 운영에 대한 의견 (인천연성초등학교 일반학급교사 김경애)	69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향과 과제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연구관 정동영)	77
	(새천년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 이미경)	87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및 훈련

주제  
발제

김 성 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 교수)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및 훈련

김성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 교수)

## I.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고려할 점

극히 최근 들어 특수교육 분야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미, 2001년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박승희 등, 2001)에서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 여건 조성의 하나로 보조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중등특수학급 운영 개선 방안'(김주영 등, 2001)에서도 특수학급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원제의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올 8월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의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이 연구되었다(강경숙, 강영택, 김성애, 정동일, 2002).

우리 나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도입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차원



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특수교육교사 1인에게 맡겨진 과도한 장애 학생 수로 인해 초래되는 질 낮은 특수교육 서비스의 해결이요, 다른 하나는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 학생의 교육적인 조치를 위해서다. 본 고에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제 도입의 필요성을 통합교육의 활성화에 맞추어 언급하고자 한다.

8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이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형태는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특수학급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반 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교육교사는 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없어 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앎음으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고 게다가 특수교육에 대한 비전문성으로 인해, 장애 학생이 가지는 문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 학생과 일반교육교사의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고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제의 도입은 장애 학생의 일반학급 방치와 그들의 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 학생의 방치를 막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장애 학생 부모는 자녀가 일반학교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학업적 요구에 맞게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특수교육 보조인력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보조인력의 수는 199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것은 명실공히 통합교육을 위한 일차적인 방안이 되었다(French & Chopra, 1999; Giangreco 등, 1997; Giangreco 등, 2001). 일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란 쉽지 않다. 특수교육교사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장소를 다녀야 하므로 매우 힘들 때가 많다. 그리고 적절한 지원 없이는 장애 학생이 일반교육 현장에서 학업 및 사회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제가 요구되었고 활성화되었다. 그래서 보조인력은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 학생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많은 일반교사들은 보조인력의 지원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할 정도로(French & Chopra, 1999) 그들의 역할은 컸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도 일반교육 현장에 있는 장애 학생이 교육 장면에서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일반학교 도입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학생의 교육적 조치를 위해 보조인력의 도입이 꼭 필요하고 당연한 만큼,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은 올바른 통합교육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있어야 한다.

통합교육이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활동과 과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활동 내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에 수용하여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이질성과 다양성의 자연스런 공존을 인정하는 심리적인 통합을 이룬다(김성애, 2002b). 아울러, 통합교육은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대상으로 당연히 여기도록 만드는 가장 적합한 길이다. 만일 학교가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적절한 구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인력의 투입만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통합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만족하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그것은 또 다른 '작은 특수교육의 섬'이 되어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을 알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막게 되고 장애 학생은 일반 학급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방치되고 명칭 붙임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한 연구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일반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보조인력이 장애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언제나 옆에 붙어 있거나 그 학생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 다니는 것이 장애 학생 및 통합교육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iangreco, M. F. 등, 1997). 그들은 보조인력이 장애 학생 주변을 늘 맴도는 것은 다음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일반교사의 교육적인 행동과 책임성을 방해한다.

둘째, 늘 옆에 있음으로 인해 장애 학생을 학급의 비장애 동료와 분리한다.

셋째, 장애 학생이 필요 이상으로 교사보다는 보조인력을 의존하게 한다.

넷째, 장애 학생과 비장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다섯째, 교사의 지시를 보조인력이 옆에서 늘 챙겨 줌으로 인해 장애 학생의 교사 지시 수용능력을 제한한다.

여섯째, 장애 학생 개인의 조절력을 잃게 한다.

일곱째, 장애 학생 자신의 Gender Identity를 잃게 한다. 그것은 특히, 보조인력의 성이 학생과 반대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여덟째, 보조인력이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동안 만드는 소음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장애 학생이 일반학급에서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 보조인력을 활용할 때 이상에서 본 미국의 보조인력 활용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들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인력의 역할은 통합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 지원의 대상에 장애 학생 뿐 아니라 비장애 학생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일반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현재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

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제의 도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있으면서, 보조인력의 활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상의 통합교육을 실천·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조인력의 역할 및 훈련 내용을 제안한다.

## II.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및 훈련

본 장에서는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과 훈련이 기술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을 하향 조정하고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정규 특수교육교사를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전혀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02년도 8월에 발표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강경숙, 강영택, 김성애, 정동영, 2002)의 많은 내용을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적용차원에서 재구조화하여 소개한다. 본 고에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도우미를 따로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

### 1.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인력 도입의 기본 방향

특수교육 보조인력제의 도입은 최상의 통합교육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도이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인력의 올바른 활용은 교육의 명확한 책임 소재, 교수협력, 학생 상호간의 교류 확대, 다학문적인 접근 체제,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학교 구조의 개혁 등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보조인력의 역할은 전적으로 일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교사의 밀접한 협력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인력은 장애 학생 교육과 마찬가지로 비장애 학생의 교육과 관련한 임무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2. 통합교육에서의 보조인력제 도입 목적

통합교육에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교수 현장에서 모든 아동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효과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통합학급에서 비록 특수교육교사와 일반교육교사가 협력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35-40명 규모의 학급에서 두 사람의 협력교수가 효율적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협력교수 할 일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협력수업을 위한 교재의 준비, 장애 학생을 위한 조절된 학습자료 준비 등이 그것이다.

셋째,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안전 및 즐거움을 돕기 위해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수업 외의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장애 학생과 일반교육교사에게 장애 학생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는데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 3.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보조인력은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보조인력의 질적인 면은 바로 통합교육의 질과 연결된다.

일반학급에서 요구되는 보조인력의 역할에 대해 Giangreco 등(1999)과 Brown 등(1999)의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Giangreco 등(1999)의 제안

- 교사가 계획한 수업을 실행한다.
- 장애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다.
-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학생을 도와준다.
- 집단 활동(운동장 활동, 식사활동 등)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 교사가 수업활동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사무적인 일을 보조한다.

### Brown, L. 등(1999)의 제안

-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개별화 지도를 제공한다.
- 기존의 평가방안을 이용하고 새로운 개별화 평가 방안을 개발한다.
- 직업 현장에서 장애 학생을 지도한다.
-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사회적 교류를 형성한다.
- 학교와 학교 외 환경에서 장애 학생의 활동을 감독한다.
- 또래지도를 감독한다.
- 개별 아동에게 맞는 일반교육 과정의 적용과 조절을 도모한다.
- 일반교사, 행정가, 비장애 자녀의 부모에게 장애 학생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컴퓨터와 병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한다.
- 기타 보조인력으로서의 중요한 지식의 습득을 꾀한다.

Giangreco 등의 제안에서 보면, 보조인력의 역할이 장애 학생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에게 보조인력의 지원이 몰려 있으면 통합교육의 기본 정신과 개념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되고 있다.



## 1) 역할

어떤 경우에는 보조인력의 참여가 일반학급에서 장애 학생이 집중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와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언제 보조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보조인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학생이 자기신변 처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화장실, 식사, 옷입기, 이동 등)
-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할 때
- 학급에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
- 위험에 봉착했을 때
- 장애 학생의 학업, 기능적 기술 등의 영역에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 모든 학생의 효율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
- 소집단 활동에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협력학습을 위해서
- 일반교육 교사 혼자서 통합교육을 방안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 통합수업을 위한 각종 자료 제작과 수업의 사전 준비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지 아닌지는 통합교육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때 학교는 모든 학생을 지원하도록 가능한 인적자원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통합교육의 보조인력은 통합학급에서 일어나는 활동 지원이 주가 되어야 한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모두 통합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교육받는 그 자체가 통합교육이 아니다. 통합교육은 일반 학급에서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협력학습, 또래지도 등을 통하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교류를 촉진하며 적어도 주당 몇 시간은 특수교육교사와 협력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인력은 특수교육교사와 일반교육교사의 밀접한

협력에 따라 두 교사 모두의 보조 인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어느 한 쪽만의 업무에만 치중하여 보조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인력과 도우미의 투입은 주로 통합수업 현장이 되도록 한다. 그렇지만 수업 외의 업무 장소는 특수교육교사가 있는 경우는 특수학급으로 정한다. 보조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과 교사가 행하던 일을 대신 하는 일로 구분하되, 주 교사의 배치를 대신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교사가 부재중일 때, 담당 교사의 감독이나 지시 없이 교육에 임하는 것이나 부모상담을 하는 것 등은 보조교사의 지위와 자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을 주도하는 학교교육계획과 평가 업무는 주 교사가 담당하되, 그 실행에 있어서는 보조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교육관련 각종 평가는 주 교사가 담당하고 보조교사는 교사로부터 지시 받은 평가방법 대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평가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을 직무 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보조인력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교사와 보조인력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보조인력의 역할이 주 교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보조인력의 역할을 고정시키느냐 아니면 융통성 있게 두느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조인력이 방과 후 시간에 학교에 잔류할 경우, 근무시간 및 공간 활용, 또는 그에 따른 예산 문제 등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 ① 도우미: *학생 지원*

도우미의 역할은 주로 통합학급에서 아동들의 학습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되도록 특수교육교사와 일반교육교사의 협력수업 시에 보조하도록 한다.

- 등교이후의 학교생활에서 장애 아동 개인적인 욕구의 지원(신변처리, 식사 지도 등의 일상생활지도 보조)
- 이동지원(등/하교시 주교사의 등/하교지도 업무 보조)



-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지원 보조
- 또래간의 상호작용 촉진 지원
- 통합 수업준비 및 자료정리

도우미의 경우, 주 교사의 지시를 일일 단위로 접수하게 하며 주 교사의 부재 시 다른 정교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도우미가 주 교사의 지시가 없는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을 되도록 피한다.

## ② 특수교육 보조인력

보조인력의 경우는 도우미의 역할과는 달리 주 교사의 보조활동의 범위가 보다 넓고 다양하여야 한다. 즉, 보조인력은 도우미의 활동 외에도 보다 다양한 아동지도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통합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또한, 보조인력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일반학교에 특수교사의 배치를 보조인력으로 대체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즉, 보조인력은 언제나 일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교사의 긴밀한 협력 하에, 주어진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 교사들의 부재 시에도 주어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보조인력 역할에 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개인적인 욕구 지원(신변처리, 일상생활관련동작 등)
- 교사의 통합수업관련 사무업무 지원: 자료복사, 개별화교수 작성 보조 등.
- 통합수업 시 교육활동지원: 교수-학습지원, 자료제작, 각종평가 지원 등
- 통합학급 아동의 건강보호 및 안전 지원
- 문제행동지도 지원
- 의사소통 지원

## 4. 보조인력의 선발

도우미의 경우, 자원하는 자에 한하여 신체/정신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교 당국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보조인력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각 학교별로 보조인력 요구 신청서를 받아 그 수요를 확인하여 선발한다. 보조인력의 자원으로는 크게 사회봉사명령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요원과 유급 고용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최적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서 유급 고용인력이 바람직하다. 유급 고용인력의 경우 선발 방법은 시·도 교육청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면접 혹은 신체검사 등 구체적인 선발절차를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공정한 선발과 전반적인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선발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관리는 각급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훈련

도우미의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훈련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직접 실시한다. 그러나 보조인력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 훈련을 책임지도록 한다. 보조인력의 역할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도우미는 그들의 성격상 업무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며 자원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업무나 역할은 매우 단편적이거나 단순하며, 자원이 자주 바뀌더라도 아동 교육에 지장이 적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훈련 역시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일선 학교차원에서 그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단한 훈련이 요구된다.

보조인력의 경우는 그 훈련 내용과 기간 면에 있어서 도우미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보조인력은 다소 장기간 같은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원의 경우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다 심도 있고 계획성 있게 짜여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 1) 도우미 훈련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도우미 훈련기간과 내용은 일선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방안에서는 그 기본적인 훈련 내용을 추천한다.

### ① 훈련 책임자

도우미 훈련 책임은 일선 단위 학교현장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선 교육 기관들이 모여서 시도 교육청에 위탁 의뢰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시도 교육청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보조인력의 훈련 프로그램에 도우미를 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한다.

### ② 훈련기간

도우미의 훈련기간은 최소 20시간은 넘도록 한다.

### ③ 훈련 내용

가치관 교육, 장애 아동 이해, 안전지도, 문제행동관리, 컴퓨터, 복무자세, 통합교육의 이해 및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지도

## 2) 보조인력 훈련

### ① 양성방법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훈련 및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되, 공익근무요원과 공공 근로요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일차적인 해당 관리 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한 후 유급 고용인력과 함께 시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훈련한다.
- 시도 교육청은 보조인력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특수교사 양성대학에 위탁하여 훈련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양성기관으로는 시·도 교원연수원,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별도교육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로 한다.
- \*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별도 교육원은 보육교사 교육원 형태로 각 대학에 부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보조인력으로 선발된 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의 부설 교육원에서 양성한다.
- \* 특수교육 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경우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가능하나,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을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부설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위한 교육원을 설치하여 대학의 교수와 지역의 특수교사 등을 교수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실시한다.
- \* 각 대학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위한 교육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청에 설립·운영(안)을 제출하여 적합한 대학을 교육청에서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 \* 처음 1년 재직 후 재계약을 한 다음 20시간의 1차 보수교육을 받으며, 1차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부터는 매 3년마다 1회씩 2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다.
- \*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 \* 보조인력을 위한 보수교육의 한 방법으로 디지털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 원격교육기관에서 원격 시스템을 통해 교육하는 경우 실습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 ③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양성 과정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가지고 교양기초(교과발달심리학, 교사론, 보조인력의 역할, 장애아 성교육, 컴퓨터 활용 실제 등), 전공기초 교과(특수교육학, 특수교육 및 일반교육 교육과정의 실제, 특수교육 보조공학,



특수학급경영, 행동수정, 통합교육, 부모교육, 개별화교육, 장애의 진단 및 평가, 전환교육 등), 전공교과(발달지체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감각장애 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일반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실습)로 구성하며, 12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의 준거(참조):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철학적, 역사적, 법적인 근거를 안다.
- 일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실재를 안다.
- 일반 아동의 발달과 장애 아동의 발달 및 학습특성을 안다.
- 통합교육에 관한 철학과 개념을 알고 그 실천 방안을 안다.
- 평가(assessment/evaluation)와 진단의 합리적인 절차를 안다.
- 장애 아동의 교육적인 욕구에 합당한 교육과정의 구성을 포함하여 기초적인 수업방법과 기술, 그리고 적절한 교수공학의 사용을 안다.
- 장애 아동이 다양한 교육적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 및 학습 환경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안다.
- 장애 아동의 행동 관리와 비장애 아동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초적 기술을 가진다.
- 교사의 지시 하에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 부모, 학교당국 및 지역사회 인 사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법을 알고, 교육 구성원으로서 교육협의회 에 참석한다.
- 보조인력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며, 모든 아동에게 모범을 보인다.

### III. 결론

장애 학생이 일반학급에 방치되어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특수 교육 보조인력의 도입은 시급한 상태이다. 그러나 보조인력의 활용 목적 중의

하나가 올바른 통합교육의 환경 조성 및 정착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일반학교 내의 장애 학생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그것은 일반학교 내에 통합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촉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는 통합교육의 제 요인을 시급히 구비한다는 전제하에 보조인력을 받아들인다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보조인력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또한, 학교 시수 운영상 특수교육교사가 일반교육교사와 협력교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교육교사가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급운영과 교육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행정이 구조화된다면 일반교육교사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보조인력과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고려 점을 제안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의 정착화를 위하여 특수교육교사가 일반교육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특수교육과 아울러 통합교육의 질적인 체험이다.

둘째,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수업 형태의 학교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학급 교육이 통합교육으로 재구조화 하고 그것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는 매우 긴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진흥법의 실행 차원에서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정 및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미 1997년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의 운영 가능성을 심도 있게 연구한 바 있고(참조: 김성애 등, 1997), 고잔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많은 후속 연구학교들이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통합교육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넷째, 교육청은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장애 학생만을 위하기보다는 통합학급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즉, 모든 학생들이 유익을 얻도록 일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교사가 보조인력의 시간과 일의 책무성을 분배하도록 한다.

다섯째, 일반학급에서 보조인력은 장애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활용한다.

여섯째, 통합교육의 활성화와 질적인 제고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과 정기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일곱째, 일반교육교사 및 특수교육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교사 활용에 관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여덟째, 일반학급에 보조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검을 실시한다:

- 그들이 배치되는 곳(특수교육/통합교육 현장)은 어디인가?
- 맡겨지는 역할과 임무가 그들이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 역할을 위하여 그들은 적절하게 훈련받았는가?
- 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감독할 체제가 되어 있는가?
- 실제로 교사들을 지원하는가?
- 모든 학생을 지원할 자세와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 일반교육에서의 장애 학생 서비스가 보조인력의 지원에 의존되어 있는가?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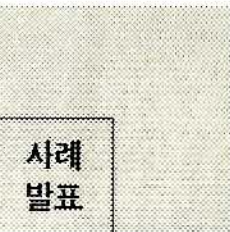
- 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영(2002).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영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애·정대영·박희찬(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애 (2002a). 통합교육. In: 김경숙, 김미숙, 김성애, 김수진, 박숙영, 백유순, 이성봉, 조광순, 조윤경, 최민숙, 허계형 (2002). 유아특수교육개론. 서울: 학지사. 129-160.
- 김성애 (2002b). Inclusion-Provocation for the 21st Century Or: Are we afraid of another "Trojanian Horse"? 토론원고.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두뇌한국21 특수교육교육/연구단, 2002 국제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탈산업사회와 특수교육". 151-155.
- 박승희·강영택·박은혜·신현기·이효신·정동영 (2001). 특수교육발전 5개년(2003-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창교(2001). 통합교육 보조교사 제도의 전국화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현장특수교육, 8(6), 44-46.
- Brown, L., Farrington, K., Knight, T., Ross, C., Zigler, M.(1999). Fewer Paraprofessionals and More Teachers and Therapists in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with Signifant Disabilities. *JASH, Vol. 24, No. 4, 250-253.*
- French, N. K. & Chopra, R. V., 1999 Parent Perspectives on the Roles of Paraprofessionals. *JASH, Vol. 24. No.4, 259-272.*
- Giangreco, M. F., Edelman S. W., MacFarland, S. Z. C. (1997). Helping or Hovering? Effects of Instructional Assistant Proximity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Vol. 64 No.1 7-18.*
- Giangreco, M. F., Broer, S. M. & Edelman, S. W. (1999). The Tip of the Iceberg: Determinaing whether paraprofessional support is needed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nal education settings. *JASH, Vol.24 No.4 281-291.*
- Giangreco, M. F., Edelman, S. W., Broer, S. M. 2001. Paraprofssional suppor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Literature from the past decade. *Exceptional Children. Vol.68, No.1, 45-63.*
- Marks, S. U., Schrader, C., Levine, M.(1999). Paraeducator experiences in inclusive settings: Helping, hovering, or holding their own?. *Exceptional Children. Vol. 65. No. 3, 315-328.*



• Minke, K. M., Bear, G. G., Deemer, S. A., Griffin, S. M.(1996). Teacher's experiences with inclusive classrooms: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refor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30, No. 2, 152-186.

• Minondo, S., Meyer, L. H., Xin, J. F.(2001).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eaching assistants in inclusive education: What's appropriate?. *JASH*, Vol.26, No.2, 114-119.

## 장애아동 부모의 보조인력 활용 사례



송 제 연  
(장애아동 부모)



부모교육 부모부 공부클럽  
신년 용행

## 장애아동 부모의 보조인력 활용 사례

송제연  
(장애아동 부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대왕초등학교1학년에 통합을 하고 있는 김재훈엄마 송제연이라고 합니다.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오늘과 같은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꼭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의 사례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아이는 36개월 때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특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할지 어디서 관련된 정보를 얻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든 것이 암담했습니다. 게다가 저의 경우는 누나가 두 명이나 있어 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더욱 컸습니다.

우리아이의 경우 가장 심각한 점은 사람보다는 사물에 관심이 많아 사회성이 없고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가 상당히 뒤떨어 졌기에 의사소통이 힘들었습



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욕구를 행동으로 표현했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머리를 박는 자해 행동을 보였으며 산만하고 다동 적이라 착석이 힘들었습니다. 다만 흥미 있는 것에 대한 집중력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며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아무리 먼 곳이나 경제적인 우리의 형편도 고려하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특수교육과 더불어 체질개선 한약, 비타민 요법을 비롯해 심지어는 우리아이들이 효과를 보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특수교육을 시작한지 5년 차가 되어갑니다.

비교적 교육비가 저렴한 복지관은 대기자가 적체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어렵고 '특수'자가 붙는다는 이유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비는 턱없이 비싸 장애아를 둔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나 나이 살을 먹어가며 조금씩 발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조금 열어졌을 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훈이는 여섯 살부터 강남구 을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곳은 자체 모니터선생님이(우리 엄마들은 통합교육 도우미를 이렇게 부름) 있는 구립 어린이집 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만 해도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강했고 충동적 위치이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래와의 통합은 조금씩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번에 되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반복을 통해 아이는 한가지 두 가지 어린이집 생활에 필요한 규범들을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재훈이를 자기들보다 생각주머니가 조금 작은 친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점은 또래아이들은 같이 지내다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을 통합하다보니 몇몇 일반아동의 엄마와도 친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아이들이 반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

다. 그들의 반응은 내 아이들에게 피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더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인성의 발전보다는 선생님들의 손이 자기아이에게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과 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체적으로 모니터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우리아이들이 통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부 엄마들은 불만스러워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난히 어린이집생활을 보내고 올해 여덟 살이 되어 재훈이는 운이 좋게도 모니터 선생님과 함께 일반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를 돌아볼 때 우리아이는 모니터 선생님이 없었다면 통합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34명이었고 새롭게 만난 담임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신앙심도 깊으시고 교직생활 20년이 넘으시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선 재훈이가 4교시쯤 약간 지쳐서 멍-하고 있을 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영혼의 천사처럼 보인다는 가슴이 따뜻한, 천사의 눈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학년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체력의 소모를 요구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교육하시던 선생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도 쉬셨고 몸살도 나셨습니다.

재훈이가 34명의 아이들 안에 들어가 선생님 마음속에도 자리잡고 있었지만 나머지 33명의 아이들도 소중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아이들이기에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지는 재훈이를 케어해 준다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재훈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저것 탐색을 하느라 이탈행동도 많아지고 잘하던 것도 못하는 등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니터 선생님이 계셔서 위치이탈을 잡아주고 주위집중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적절한 개입과 상호작용 유도로 친구들이 재훈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1학년은 입학해서 한동안 엄마들이 교실 청소를 해주러 갑니다. 하루는 저도 청소를 하러 갔더니 교실 안의 모니터 선생님을 보고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저 애는 엄마가 매일 교실에 들어가 있는대구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애 엄마는 저 구요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아이로 인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러온 선생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또래친구들과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이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은 자기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재훈이는 기분이 나쁘거나 불안할 때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그럴 때 이제는 친구들이 재훈아 기분 안 좋으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건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 같은 반 친구들이 힘든 친구를 이해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훈이는 요즘 또래들의 자극을 통해 그렇게 어렵던 표현언어가 차츰 많아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재훈이가 하지 못할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모니터통합은 순기능적인 부분과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부분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모니터의 테크닉으로 순기능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집안에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밖을 나서면 그때부터 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는 사회복지 천국이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로 이민간 가족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부모의 남은 인생보다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을 위한 보조원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된다면 많은 장애아들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 들어지게 된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주며 함께 어우러져 살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도화 된다고 해도 장애아를 둔 우리 부모들은 무거운 어깨의 짐을 조금 덜 뿐 각자 앞에 놓여진 넘기 힘든 커다란 산 앞에서 그 산을 넘기 위해 고심하며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시 통합교육 보조인력 활동사례

사례  
발표

조 정 일

(사단법인 함께걷는 길벗회 원장)



# 인천시 통합교육 보조인력 3년간 전반 활동사례

조정일

(사단법인 함께걷는 길벗회 회장)

## 1. 통합교육보조교사 활동 전개과정

### 1) 2000년도 장애아동공익보조교사

일반학교에 장애자녀를 통합시키면서 직접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장애아의 부모의 제안과 노력을 통해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형식으로 장애아동 공익보조교사명칭으로 활동이 출발되었다. 발달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40시간 교육을 특수학교 4개교에 27명과 일반학교 25개교에 28명이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 2) 2001년도 통합교육보조교사

일반학교에만 23개교에 25명의 통합교육보조교사가 배치되어 활동하였다.



그 근거는 2000년도 활동의 평가결과 특수학교의 장애아동에 비해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과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 평균 7-8명이 되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경증장애아동을 거의 혼자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특수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 등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학교에서는 보조인력이 거의 장애아동의 부모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에 비추어 결정되었다.

공공근로위탁사업의 제한으로 정기소득자의 배우자배제 규정과 공공근로 3단계 연속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2학기에만 배치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시의회 청원활동을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와 인천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2002년도부터 교육청주관의 일반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결의되었다.

### 3) 2002년도 통합교육도우미

교육청주관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확보된 예산을 각 학교로 배정해주고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통합교육도우미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학기에 40명이 배치되었고(초등학교30명과 특수학교4명 일반고등학교에 6명), 2학기에 13명(초등학교9명 특수학교4명)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교육청	학교수	학교명	통합교육도우미
남부교육청	8	문학, 용현, 용정, 남부, 학익동, 승학/(2학기)주안 대화초	8
북부교육청	22	부평동, 산곡, 동암, 효성, 부개서, 산곡북, 가좌, 계산, 화전, 봉수, 안남, 동수, 작동, 검단, 구산, 가현/(2학기) 부평, 일신, 효성서, 마곡, 단봉, 부곡초	22
동부교육청	9	만수, 중앙, 동부, 조동, 장수, 남동, 성리, 주원/(2학기)동춘초	9
서교육청	특수학교	인혜, 연일/(2학기)예림, 은광, 성동, 해광 학교	8(인혜, 연일2명)
	고등학교	해양과학고, 인천여자공고, 부평공고, 계산공고, 부평여자공고, 생활과학고	6
계	51교		53명

### 4) 통합교육보조교사의 교육

아래의 표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주 제	강 사
1강	• 발달장애아동 일반에 관하여	북부교육청 김병희장학사
2강	• 발달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한국통합교육연구회 전선주회장
3강	• 통합장애아동 지원전략	한남초등학교 유장순특수교사
4강	•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가정연계중재 프로그램	성분도복지관 장혜성연구원
5강	• 통합교육의 현황과 전망	남부교육청 김석중장학사
6강	• 통합교육보조교사의 역할과 임무	인천시교육청 조필기장학사
7강	• 통합교육보조교사에 대한 요청사항 1 = 교사의 입장	부개서초등학교 이남호교사
8강	• 통합교육보조교사에 대한 요청사항 2 = 학부모의 입장	통합교육부모회 김영실어머니
9강	• 2000년도 통합교육보조교사 활동사례	통합교육보조교사 대표 정재정
10강	• 통합교육보조교사활동실무안내	사단법인 함께걷는길벗회 조정일
보충 교육1	• 일반학급에서의 장애아동 인식개선교육	한남초등학교 유장순교사
보충 교육2	• 통합교육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토론회	나사렛대학김종인교수의 5인

통합교육보조교사가 각 학교의 아동과 연결 될 때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각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조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고, 특수교사의 지도아래 각 학교실정에 맞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2. 통합교육보조교사의 지원활동내용

통합교육보조교사의 지원활동은 특수교사(완전통합 경우 일반학급 교사)의 지시와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 1) 원반학급 적응활동지원

원반수업동안 수업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뛰어 나가는 것을 막고, 의자에 앉도록 주의를 주거나 교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시를 내려주거나, 집중하게 하는 활동과 식사시간의 편식지도나 신변처리를 보조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현장학습 체육, 미술, 음악, 과학실험, 학교행사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한다. 또한 쉬는 시간 동안의 놀이에 참여하게 하거나 화장실사용, 다음시간의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다.

### 2) 특수학급 적응활동지원

통합된 발달장애아동들은 일일 2시간 정도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에게 개별 수업을 받고 있다. 특수학급으로의 이동에 대한 보조활동과 국어와 수학수업에서 특수교사가 다른 아동을 개별 수업하는 동안 아동이 개별과제를 수행하도록 보조하였다.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아동에게 반복 지도해 주거나, 신변처리 보조활동을 수행하였다.

### 3) 방과후 지원활동

아동이 방과후 지역의 복지관이나 특수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기관으로 이동을 보조하였다. 방과후 개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는 1시간 숙제지도 나 국어, 수학과목에 대해 보충학습을 실시하였다. 하교지도를 수행하였다.

부분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지도도 병행되었다.

### 4) 교사 지원활동

아동이 하교 후 원반수업이나 특수학급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준비하였다.

\* *생애기록* *22*

## 3. 인천지역 통합교육보조교사활동의 성과와 한계

### 1) 성과

① 인천지역의 통합교육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초등학교(39개교)에 통합교육도우미를 배치하게됨과 더불어 고등학교(6개교)에 도우미를 배치까지 확대되었다. 2003년도 일반중학교에 3개 학급, 인문계고등학교 4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설을 가능케 하였다.

② 인천지역의 일반학교에 통합된 경증장애아동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인천시통합교육부모회) '눈치 보기'를 *100%* *150%* *관세우니* *미안하리니* *동생광우니* *기생광우니* *100%* *150%* *관세우니* *미안하리니* *동생광우니* *기생광우니*

③ 통합교육보조교사의 지원활동을 받은 발달장애아동의 수업참여도가 높아지고 부적응 행동의 감소와 더불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발달장애아 사회성의 향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통합교육보조교사의 지원활동이 발달장애아 사회성향상에 미치는 효과 2001 조정일)

### 2) 과제

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진행되어야하고 특수교사와 통합 교육도우미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② 통합교육담당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③ 통합교육도우미의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통합교육도우미활용사례들이 수집되고 모범사례들이 발굴되어 통합교육도우미활용지침으로 확산되어야하고 그 효과가 분석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 2001년도 활동개별사례

### <사례1> 부모님의 글

-가현초등학교 박혜림 모-

저희 딸 혜림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언어 장애(반응성애착장애) 진단이 나왔고 제일 좋은 방법은 비장애아와 통합하는 교육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하여 일반 유치원과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치원은 인원수가 적고 통합 선생님이 오셔서 혜림이에게 별 어려움 없이 졸업했지만 초등학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음)

처음에는 한 학급에 40~50명 친구들 사이에서 혜림이가 소외된 것 같고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이탈 될까봐 밖에서 기다리고 체육시간에 혼자 운동장 구석에 놓고 있을 때 먼발치에서 손짓하기도 하고 끝어다 친구들 사이에 줄을 세웠습니다.

그나마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라 항상 혜림이를 찾아다니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아이들도 가끔 혜림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혜림이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수업에 함께 참여 하셔도 좋습니다"하시기에 두 달을 함께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동안 수업에 참여하면서 내 딸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워낙 1학년 개구쟁이 아이들이라 점점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지 해달라는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다투고 울고 이르고 그것을 다 들어 주다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갈 때 보조 선생님이 웃서 제일 일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보조선생님께서 보호가 아닌 적응 훈련을 시켜주셨기에 지금은 혜림이도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친구들도 혜림이 주위에 모여들어 단합심을 보이고 분단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행동하고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저는 혜림이를 완전 통합하려고 일부러 특수 학급이 없는 곳으로 멀리 다닙니다. 물론, 특수 학급이 있으면 아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아이다 비장애아를 따라 가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원반에서 수업에 방해되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특수학급의 아이들 고립시킨다면 우리 아이는 일반초등학교에서 정말 장애아가 되고 비장애아와의 거리감과 놀림감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가 우리아가 태어나서 정말 사회에 첫 출발점이고 성인이 되어서 장애인인데 장애가 불편스럽지 않게 이사회에서 살아 갈려면 비장애와 완전 통합이 우선이고 그 속에서 못하는 부분 즉, 훈련도 덜 된 부분만 통합 선생님이 자리만 잡아 주시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갈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조선생님보다는 통합선생님이 더욱 어울릴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장애아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통합선생님이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으시고 일반 선생님의 선진국형 의식이 개인다면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주고 유학가서도 얻지 못하는 심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사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 <사례2> 부모님의 글

-남동초등학교 양세랑의 모 -

저는 양세랑 엄마입니다. 두서없이 몇 자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느 때 보다도 인천에 살게됨을 감사 드리며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 분들과 길벗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랑이는 생후 두 달쯤 아주 심함 열병으로 20일 정도 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런 병치레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는데 네 살 정도 되었을 무렵 말도 하지 않고 아이가 불려도 대답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자동차가 다가와도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TV 선전 프로그램에는 유난히도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서 잘 보곤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설마 우리아이가 그럴 리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의 권유도 있고 해서 먼저 복지관에 문의를 했고 장애아들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가서 상담한 결과 자폐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서울역 뒤에 있는 소화 아동 병원을 또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러갔지만 역시나 자폐성향이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한 결과 지금은 곧잘 말도 잘하고 엄마 아빠와 눈도 잘 마주치면서 집안에서의 심부름은 곧 잘하고 학습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어떤 때는 놀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보다도 힘든 건 엄마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아이는 반 아이들과 반 엄마들을 잘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도움은 조금씩이나마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보조교사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랑이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가버리곤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학교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의정부로 성남으로 서울로... 정말 지치고 겁나는 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보조 선생님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세랑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지난 토요일에서는(20일) 결국 학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조선생님을 만난지가 벌써 두 달이 되어갑니다. 저는 너무 흥분되고 행복했습니다. 길벗회에서 저의 어려움을 아셨는지 올해도 저에게 또 이런 행운을 주셨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길벗회에 부탁드립니다.

2학기 뿐 아니라 1학기 때도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학기 때가 아이들에게는 보조교사가 더더욱 필요하답니다.

새학년, 새교실, 새친구, 새선생님... 적응하기가 많이 힘이 드나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세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례3> 통합교육보조교사 활용사례

-만수초등학교 특수교사 황수미-

1. 교사의 전반적인 수업활동을 원활히 돕는다.

5명 이상의 아동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수업시간에는 각 아동들의 수준과 교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아동에게 충분한 교수 활동을 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보조교사의 개입은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수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2. 개별교육강화

2~3명의 아동들이 함께 공부 할 때 보조교사의 개입으로 한 아동 각자에게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3. 치료교육향상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시·지각활동, 정서·사회성훈련(미술치료, 이닦기, 음식만들기...)등의 치료교육시간에 보조교사의 개입은 교사혼자의 역부족인 상황들을 보완해 주고 학생의 수업개입정도를 원활히 돕는다.

4. 원적학급에 부분적인 통합(체육, 미술, 실과...)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 담임 교사의 부담스러워함이 있지만 장애아동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5. 방과 후 아동활동을 계획하고 도울 수 있다.

부모의 시간이 여의치 않는 아동 중에는 치료교육하원의 과외활동이 필요하다.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모대신에 보조교사의 개입은 매우 도움이 된다.

\*\*보조교사의 채용-보수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아동심리, 간단한 교수원리내용이 필요합니다.\*\*



- 창석이와 함께 한 4개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던 중 우연히 '사단법인' 함께걷는 길에서 시작한 통합교육 보조교사 사업과 만나게 되었다. 멀리에서 자폐아동, 혹은 정신지체 아동을 바라볼 기회가 있긴 했지만 직접 부딪히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도움이 되긴 할까? 잘 모르는데'는 두려움도 앞섰다. 하지만 딱 4개월이라는 것이 막연한(?)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그래 4개월 동안 마음과 몸을 다해 부딪혀 보자'

먼저 길벗회에서 진행 중이었던 '발달장애아동 어머니 대학'을 수강했다. 어머니 대학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었고 통합 교육과 발달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해 주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 갈수록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도 했다.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장애아동과 그 부모님과 만남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난 창석이의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다. 물론 창석이도... 창석이는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와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 무거웠다. '장애아동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데, 할머니와 생활한다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드디어 출근 첫날, 학습 도움실에서 멋진 창석이를 만날 수 있었다.

통통한 얼굴, 오동포동 한 몸, 또래보다 훌쩍 큰 키의 창석이는 개학 첫날부터 도움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가수 '싸이'를 닮은 매력 만점의 아이였다. 하지만 자폐 아이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업시간에는 마음대로 교실로, 복도로 돌아다니곤 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어울리기 보다 도움실에서 컴퓨터와 씨름을 했다. 그래도 창석이는 읽고 쓰는 것이 가능했고 반향어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능력도 뛰어나 자기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 컴퓨터는 책으로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모두 가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 그리고 체육시간에 학교 밖으로 탈출하는 것, 신발을 신발장에 넣지 않는 것, 배식 엘리베이터를 마구 눌러놓는 것 등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다.

첫날 수업이 끝나고 창석이를 데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갔다.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옆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운동도 시킬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창석이는 '초코렛색 빌딩', '초코렛색 빌딩'하더니 어느 건물로 나를 이끌었다. 빌딩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 인테리어 사무실, 찜질방을 모두 둘러보고 나서야 창석이는 발길을 돌렸다. 창석이는 욕구가 아주 많은 녀석이었던 것이다.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혹은 자제되지 않으면 집을 나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난 창석이와의 대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향어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씩 시작되었다. 자잘한 문제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창석이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다. 다행히 체육시간에는 수업 참여가 가능했다. 체육시간에 원반 선생님과 대화 시작되면 분명히 다른 시간에도

수업 참여가 가능하리란 확신이 들었다. 창석이와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던 체육시간에 원반 선생님께 정중한 부탁을 드렸다, 다른 수업 시간에도 창석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창석이를 한자리에 앉혀두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워서 보조교사의 수업 참여를 미뤄 왔었다'며 아주 흔쾌히 수업 참여를 허락해 주셨다.

이주 약간의 도움만으로 창석이는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옛일이 되어 버렸다. 물론 돌아다니고 싶어 좀이 쏘셔 했지만 창석이는 자기 자리에서 모든 수업을 받아낼 수 있었다. 창석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거 창석이가 만든거예요?"

"와! 대개 잘 만들었다."

"창석이가 ○○보다 더 잘 만들었다"

원반 선생님은 아주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

"창석이도 발표해 볼까?"

"창석이가 발표를 잘했으니까 박수 쳐주자"

교실 뒤편 창석이의 스티커 칸에도 스티커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이 동시를 쓸 때 창석이도 동시를 썼다. 창석이는 학교 한편에 있는 대추나무를 무척 좋아했다. 대추나무 밑에서 거의 하루에 한번씩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시였다. 창석이는 그저 떠오르는 대로



적어내려 갔는데 정말 훌륭한 동시가 되었다.

### 대추나무

파란하늘  
열렸어  
단풍이  
되잖아  
대추나무에  
올라갔어  
흔들었어  
나뭇잎이  
훨훨

너무 잘 써서 하나만 더 써서 달라고 했더니 잘 접어서 겉면에 '선생님 선물 이에요'라고 써서 내밀었던 창석이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엄청나게 체육활동을 싫어했던 창석이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체육수업이 있는 날이면 담임 선생님께 가서 특유의 억양으로 '선생님 체육 해요'를 거의 매 시간마다 요구하게 된 것이다. ( 날씨가 추워지면서 체육시간을 오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 )

스케이트를 타러 갔던 현장학습 때에도 아주 멋지게 스케이트를 탔다. 물론 가을 운동회에서도 3학년 발표작품이었던 울동을 모두 따라했다. 그림 그리기를 유난히 싫어했던 창석이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그림을 그린다. 즐겁게 오리고, 자르고, 찢고, 붙이기를 한다. 글씨 쓰기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졌던 줄긋기, 원 그리기, 세모, 네모 그리기, 가위 쓰기, 셀로판 테이프 사용하기, 풀 사용하기 등이 거의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다른 아이들과의 대화도 시작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행동만이 앞섰던 것들이 '○○야 지우개 빌려줘!' '고마워' 등의 간단한 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청소를 전혀 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청소도 하고 주변도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유박스를 창고 옆으로 나르는 일은 거의 창석이

의 몫이 되었다. 아주 조금의 도움만으로도 이렇게 창석이는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창석이의 버릇이 완전히 고쳐진 것은 아니었다. 겨울 초입의 어느 토요일 오후, 가끔 오시는 아버지를 문밖에서 기다리던 창석이는 훌쩍 집을 나섰다. 첫 겨울 추위가 몰아닥칠 때였다. 3일이 지나도록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내 서울의 한 버스 종점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창석이는 우리 품에 돌아왔다.

그 일을 겪으며 아직도 창석이의 욕구는 너무 많고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주 충분히, 더 충분히 채워질 때 자제력도 생기고 더 가까이 다른 사람들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발달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많다. 보조교사제도는 그 많은 것들 중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얻게 된다. 발달 장애인도 그 시기 평생을 살아갈 기초를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추어지면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일반적인 교육의 틀에서 기초를 얻을 수 있다면 발달 장애 아동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 시기의 작은 지원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립능력, 사회적 능력을 갖추는데 너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조 교사제도가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지금을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을 다 놓치는 것이다. 4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이 사업을 끝낼 무렵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한다는.... 더 많은 지역에서 모든 장애 아동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

또 어디선가 창석이와 같은 아이가 얘기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 우리 체육해요"

"우리 그림 그려요"



<사례5>

장수초등학교 통합교육보조교사 김영실

어느새 2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다행이도 내가 보아온 아이들은 2년을 거슬러 뒤돌아보니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고 그것이 마치 다 내덕인 양 너무도 뿌듯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아이 하나로도 나를 감당하기 힘들어 많은 시간 힘들어하였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혹은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분풀이 하듯이 매질을 한 적도 있었고 누구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소리 질러대며 내분에 못 이겨 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내 아이나 남의 아이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나는 내 아이는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자만하며 남의 자식의 장애를 굉장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복지관에 데려다 놓고 1,2시간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그쳐 수다나 떨면서 할 일없이 보내었고 그것이나를 읽매는 것이라며 짜증이 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장애를 가진 남의 자식을 만났던 지난2년의 시간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대했을 때 나름대로 무척이나 힘들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힘들고 난감했던 순간들도 많았었죠...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으로 자신의 변화된 감정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나타내었으며 가뜩 학교란 생활이 적응이 덜된 아이인지라 전혀 보조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이 나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지시를 따른다는 사실을 저 역시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이 한번 두 번 지시하면 되는 것을 우리아이들에게 10번 혹은 20번 반복해 지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은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지시하고는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꿀밤을 쥐어박던 순간이 생각나 나 스스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아이를 기다려 주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

시나 행동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도 내 아이에게도 아주 중요한거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내 아이를 대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내 아이를 대해야 아이의 문제 행동이 빨리 줄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내 아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역시 보조교사라는, 장애아동과 함께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 조차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답답하며 힘들까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엄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아이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와 실랑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직도 더 많이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아이들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현장학습을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하면서 우리아이들도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의지대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에 곁에서 조금의 도움으로 조금씩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의 도움으로 친구들과 사귄 수 있다는 것, 알림장을 스스로 쓰게 함으로서 집에서 엄마가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도움일지 모르지만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그리고 보조교사로서 아주 커다란 몫이란 걸 알았습니다.

한 두 마디의 단어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몰랐던 아이가 지금 자신의 의사를 짧지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은 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든 모두들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기도 하지만 특수교사, 통합반 담임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보조교사의 몫도 아주 크게 자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새 학기에 나는 다시 학교에 나가 장애아이 곁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례6> 한학기를 접으며..

만수초등학교 통합교육보조교사 정재정

몇 달간의 학교생활을 마치며 조용히 기억해 본다. 사실 난 이 아이들과 인



연 맺기 전에는 전혀 이 아이들을 몰랐고, 알았다해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왜 살아야 할까? 생각했을 것이다. 점점 눈이 커지면서 아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게 되었다.

감히 몇 자를 쓰게 되었지만, 교육에 대한 논할 능력도 갖지 못했고 그럴 주제도 못된다. 다만, 아이들과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나 말하고자 한다.

문득, 어느 사찰의 부처님 모습이 생각난다. 흉하리 만치 여러 개의 팔을 가지고 계셨다. 왜 저런 모습을 하셨을까? 아마도 큰 죄를 지으셨나보다... 생각하고 한 스님께 여쭙어 보니... 스님이 대답하시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평생 소원이 여러 개의 팔을 가지고 싶으셨단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시간 시간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도움실에 오는 아이들을 다 안을 수 있게 나도 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실에는(만수) 학습 부진아를 포함해 애교덩이 태형이(자폐) 능청이 기호(정신지체)등 10명이 있었다. 작년에 경험했기에 조금은 당당하게 녀석들을 만났다. 그사이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고 반가움과 당황함이 몰려왔다.

교실에는 너무도 적극적이고 건강하신 선생님이 계셨다. 태형이는 언어, 수 개념(신변처리는 완벽) 모두 뒤떨어진 아이라 주고 그쪽으로 학습을 많이 하는 친구다. 기호는 뛰어난 화술과 상황대치는 너무 잘하지만 시·지각면이나 소근육 발달이 약하고 신변처리가 전혀 되질 않았다. 여러 가지 학습을 변형해서(구슬피기, 단추, 지퍼올리기, 글씨 쓰고 읽기, 수개념)교사의 지시를 따라 천천히 공부했다. 그리고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강화서사 학습 체험장에 참가해 쌀을 씻기부터 밥이 되는 과정을 즐겁게 익혔다. 그 과정을 아이들은 신나했고 적극적이었다. 식사시간에는 너무 좋아 만세하고 합성을 질러 댔다.

9월에 학교 행사는 운동회와 여행 등이 있었다. 단체활동에 조금은 부담이 가는 아이들이지만 보조가 있기에 함께 뛰고 국민체조도 했다. 달리기를 하고 손등에 도장 찍는 일은 아이들에게겐 굉장한 선물이었다. 담임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참여를 놀라워 하셨다. 태형이는 수학여행에 참가할 수 없기에 나와 들어서 오붓한 소풍과 함께 데이트를 하며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다. 좋아서 이리저리 뛰면서도 질서를 지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비도 스스로 내보고 벨도 눌러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노래도 불러보았다. 나는 그녀석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지 새삼 놀랐다.

기호의 스카우트 활동 중에 정동진 해돋이와 강릉 소리박물관 견학이 있었다. 1박2일 활동이라 당연히 제외된 프로였지만 욕심을 내서 참여했다. 엄마 곁을 떠나보는 것도 배우고 협동심도 기르고 신변처리도 혼자하고 대원들과 함께 자보는 절호의 기회였다. 소지품관리와 단체행동에서 튀긴 했지만 어쨌든 장엄한 해맞이를 하고 소리박 물관에서 어찌나 진지한지 너무나 대견스러웠다. 학교에선 늘 바지에 실레하던 녀석이 신사답게 잘 처리하고(물론 친구들의 도움이 컸지만) 멋진 여행이 되었다.

작년과 올해는 아이들이 너무 달라져 있었다. 태형이는 제법 의젓하고 교실에서 질서를 지킬 만큼 성숙해 있어 안심이 되었고 대견했지만, 기호는 문제행동들이 많이 늘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 쓰고 고집부리고 아무에게나 달려들고 수없이 반복되는 교정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가끔 학교에서 이탈하는 행동으로 당황하게 만들고 속을 태웠다. 어느 날, 우린 엄청난 전쟁을 학교 뒤편에서 치뤘다. 난 영영 울고 싶었고 당장 그만 두고 싶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늘 긴장시켰고 힘들게 했다. 난 심한 갈등과 슬럼프에 빠졌다.

나 자신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날 매력 없는 녀석은 씩~ 웃으며 너무도 태연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많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아이들이 손잡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 거목이 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도움실 선생님의 끝없는 노력에 과연 특수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감탄도 여러 번 했다.

똥똥한 기호를 염려해 시간 시간마다 운동기구에 세워주면서 격려해주고 쳐다보는 그분께 늘 죄송했다. 주체님은 생각이지만 감히 의견을 얘기해 보자면 학습 부진아와 발달장애 아동과 교실이 구분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아이들에게 공부가 우선인 학습보다는 신변처리 생활 영역 알기 전화번호 등등..이 더 필요하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두서없고 주체님은 생각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2002년도를 기약해본다.



#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의 필요성

토론  
발표

정 숙 자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회장)



#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보조인력의 필요성

정숙자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회장)

## 1.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장애아 부모들은 아이의 장애를 발견하고 24-36개월부터 특수교육을 시작해 학령기 전까지 약 45년 동안 그룹과 개별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육을 시킨다. 또한 특수 교육적 지원 하에서 유치통합을 시키는데 부모들의 교육적 지원과 열정은 최대일 것이다.

하지만 학령기가 되면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를 선택해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 때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그것은 일반통합 환경의 계속적 지원이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인 것은 알지만,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보내는 걸 결정하기란 현재의 일반학교 환경에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증,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아무런 제도적 도움 없이 일반 교육현장에 노출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먼저 담임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장애학생에게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처할 능력부족, 장애아동으로 인한 수업방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도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해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담임교사 또한 물리적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됨으로써 그 책임감과 부담감은 과중해질 수밖에 없고, 비 장애학생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진학 시켜 놓고도 하루하루를 마음 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장애아의 통합교육은 궁극적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또래 아이들과 같이 배우고, 개별성이 있음을 이해시키며, 인정받아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보조인력의 긍정적 효과와 해결되어야 할 점

제도적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장애학생이 속한 통합학급에 지원이 된다면 장애학생과 또래아동 및 담임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 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2.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등을 조절하며, 상황을 이해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질서나 이동 등 물리적인 도움을 주거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4. 신변처리 미비로 인한 놀림감,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다.

5. 보조인력이 또래아동을 유도해 직·간접적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다.

6. 실외활동을 지원 받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7. 장애학생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많은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8. 담임교사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이 다양하게 처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이해와 지도로 대처 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편 보조인력이 투입됨으로써 해서 역기능 적인 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학급 내에서 보조인력과 장애아동만의 또 하나의 격리를 야기 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조인력의 역할은 통합학급을 지원하고,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해서 그 학급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점점 스스로 대처 할 능력이 생기게 되면, 보조인력은 점차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며 장애학생 스스로도 전해 갈 수 있게 하고, 또래 친구들과 독립된 개체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제시되는 문제는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을 보조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통합환경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담임교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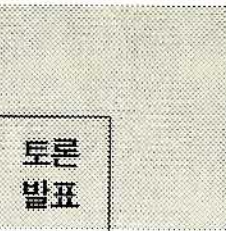


### III. 보조인력과 특수교사

보조인력은 비 장애학생과도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담임교사를 도와 통합학급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긍정적인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보조인력은 유급으로 하며, 교육학이나 특수 교육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수학급의 교사는 보조인력과 담임교사와 협력해 장애학생을 진단 평가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합은 일반학생이나 장애학생에게 개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같이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시점에서 질적으로 좀더 나은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보조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이 종 필

(서울상봉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



##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

이종필

(서울상봉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

### 들어가며

장애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 되어왔고, 내년부터 시행될 '특수교육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도 보조요원에 대한 언급과 시행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형태로 배치될 것인가? 어떻게 인력 수급을 할 것인가? 보조요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보조요원의 관리 및 연수는 어디에서 담당하게 될 것인가? 보조요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등과 같은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나 관련 단체에서 나름의 논의를 거치고는 있으나 그것이 교육의 제 주체들간의 협의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외국의 문헌연구 등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에 이러한 자리를 통해 학부모, 교수, 특수교사, 일반교사, 정책 결정자, 전문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 자리의 토론이 각 주체들의 의견을 교환하여 좀 더 나은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의 내용은 기초 발제를 해주신 대구대학교 김성애 교수님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 요원의 역할 및 훈련'이라는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로서 갖게 되는 몇 가지 의문점들과 그에 대한 나름의 생각, 그 외에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것이다.

## 1. 기초 발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1) 특수교육 보조요원은 일반학교에만 필요한가?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 보조요원이 필요 없는가?

2) 보조인력을 도우미와 보조요원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한가? 도우미와 보조요원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3) 공공근로 요원과 사회봉사명령자가 특수교육 보조요원으로 적절한가?

4) 보조인력의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보조 인력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5) 현실적으로 보조 인력이 할 수 있는 일반 학생의 지원은 무엇인가?

## 2.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1) 보조인력제도의 시행은 특수학급, 특수학교 양자 모두 실시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보조인력제의 배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들어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수학급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중복장애나 중도장애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에 비해 자립생활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한 명의 교사가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의 학생들을 하루 종일 교육해야 한다. 이 중에는 기본적인 대소변 훈련, 식사지도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필요로 한 아동들이 여럿 있다. 그러므로 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합교육을 촉진하는 것으로만 한정지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 향상 측면으로 바라보아 일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교, 보호 작업장 등에도 보조 인력이 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보조인력의 배치는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학생들은 각 개개인에 따라 그 특성과 능력이 다양하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또는 특수학급에 입급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보조인력의 시행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조인력의 배치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인력의 필요 여부는 장애학생의 학부모, 일반교사(원적학급교사), 특수교사, 학교 관리자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선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학부모, 원적학급교사, 특수교사, 학교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 우선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보조인력의 연수와 관리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인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조인력제도의 경우,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선발부터 관리까지 특수교사가 일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 작년과는 다르게 길벗회에서 배치 전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연수시간과 지속성에 있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수교육보조요원이 제도화된다면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장애 아동의 특성,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복무자세 등과 같은 보조인력에 대한 연수 계획을 세워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조인력은 적어도 학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김성애교수님의 발제문에는 보조인력의 대상으로 공공근로 요원과 사회봉사 명령자가 들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자나 공공근로 요원은 한시적으로 배치되거나 분기별로 운영되어 지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지속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어도 학년제로 운영되어야 개개인의 학생을 파악하고 그 학생에게 적절한 조력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 두 해에 걸쳐 보조인력을 채용해본 인천의 한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작년에는 공공근로 요원을 채용하고 올해에는 유급 보조원을 채용하였는데, 유급보조원의 경우, 본인도 학교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학교직원들도 유급보조원을 직원으로 생각해 상호 책임감이 증가하며 일반학급 수업에 들어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 졌다고 한다. 또한 1년의 교육계획 하에 보조요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다.

5) 보조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요원의 역할을 등교 후 학교생활에서 장애 아동의 개인적인 요구(신변처리, 식사지도 등의 일상생활지도)에 대한 보조 외에 통합수업지원, 학습지도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학력제한과 연령의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학력은 고졸이상으로 연령은 아동과 함께 체육활동, 특별활동, 일상생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6) 경험과 소양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보조인력 제도의 도입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사람이 보조요원으로 배치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보조인력이 배치된다고 해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절한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배치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요원이라는 직업이 보람과 함께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보조요원의 근무여건도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보조 요원들(교무실보조요원, 과학실보조요원)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경험 있는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하겠다.

## 나오며

실제로 인천에서 보조인력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선 적절한 지원의 부재로 원반학급활동에 흥미가 떨어져 학교 구석구석을 배회하던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 교실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장애가 심하다며 전일제를 요구하던 원적담임선생님을 설득하여 일부 시간이나 원적학급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단지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생활은 접어둔 채 아동과 함께 등교하여 그림자처럼 생활하시던 부모님들께도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땅히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복지관의 치료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던 아동들이 보조요원의 도움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이는 보조인력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혹시 보조인력의 배치가 정규 특수교사의 배치를 늦추게 되지는 않을까? 보조인력의 배치로 학급당 인원수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그러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일 것이다. 또한 한정된 특수교육의 예산 하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전체 특수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일까? 에 대한 고민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보조인력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주체들의 의지와 힘을 모아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특수교육 보조교사제(인력) 운영에 대한 의견

투론  
발표

김 경 애

(인천연성초등학교 일반학급교사)



## 특수교육 보조교사제(인력) 운영에 대한 의견

김 경 애  
(인천연성초등학교 일반학급교사)

### 1. 통합교육, 이래서 해야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잊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아이들이 장애아이들과 어려서부터 계속하여 같이 공부하고 어울리며 시장에서, 교회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고 생활해 왔다면 서로의 통합이 좀 더 쉬었을 것이라 믿는다. 일반 아이들과 장애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폭넓은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전에 함께 어울려 교육받는 아동기부터의 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 통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

장애아이들은 장애아이들끼리 보다 일반아이들과 상호작용 할 기회가 많아 질 때 보다 적절한 사회적 행동들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일반 아이들을 위해 고안된 다양한 자료들이 장애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아이들도 장애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으로 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며, 장애아이에게 도움을 줄 때는 가능한 독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보다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아이는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주는 사회성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학교라는 지역사회가 장애아이들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학습하게 된다. 수업보다도 더 중요한 품성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 2. 보조교사(인력)의 필요성

남학생22명, 여학생18명(통합장애학생 남, 여 각 1명 포함) 총40명의 1학년 어린이와 한 달간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장애아동의 어머니 한 분을 도우미로 청해 1학기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시작 될 즈음 도우미 어머니는 얼굴색이 나빠질 정도로 힘겨워 하셨고 아이도 별다른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길벗회'라는 단체에서 보조교사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여 보조교사 1명을 배치 받아 2학기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보조교사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첫째, 고밀도 학습집단에서 장애학생의 과잉행동이나 자리이탈, 문제행동으로 인한 수업의 흐름 방해를 저지한다.

둘째, 교실 밖으로의 이탈이나 행동에 대한 장애학생의 안전문제에 대처한다.

셋째, 장애학생의 신변처리나 일상생활관련 욕구를 지원한다.

넷째, 장애학생의 수업( 실외,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보조로 인한 지적, 사

회적응력, 참여도 상승 효과가 있다.

다섯째, 개별화 수업의 보조자로서 장애학생의 교육효과(학업, 기술)가 기대된다.

여섯째, 일반 아동에 대한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게 하고 학급업무를 수월히 수행하게 된다.

일곱째, 자료의 제작이나 각종 평가, 소집단 활동의 협력자, 지원자가 된다.

여덟째, 일반 아동들에게 생긴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도와준다.

아홉째, 장애학생에 메어 살게되는 부모들에게 잠시의 여유와 충전의 시간을 주고 장애학생의 동생이나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들을 공유할 여건을 조성한다.(개인적으로 「가족보존서비스」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 3. 보조교사의 자격 및 역할

### 1) 자격

- 전문대졸 정도의 학력을 소유하고(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와의 협의 및 진행, 자료 제작, 등의 이해) 사회복지에 관련된 자
-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사랑, 봉사정신 있는 자(판단기준?)
- 봉사단체나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2) 역할

-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지원(수업 방해, 단체 활동에서의 이탈, 나쁜 습관 등)
- 과잉행동으로 인한 일반 아동과의 관계개선 지원
- 교내 외 이동 시 안전지도 및 보호
- 장애학생의 수업자료, 교수자료, 문제행동 개선 자료,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자료 등의 제작을 지원
- 보조장비, 신변처리, 착탈의, 급식지도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의 정도
- 담임교사의 사무업무 지원(교실 정리정돈, 자료정리, 환경정리, 복사하기 등)
- 방과후의 활동(?)-장애보상치료 활동(언어치료나 심리치료...)



#### 4. 보조교사의 선발 및 교육, 관리

##### 1) 선발

- 계약직의 형태로 선발한다.(6개월-12개월)
-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부모, 교사 학교장이 협의하여 선발한다.

##### 2) 교육

- 120시간 이상의 훈련교육으로 양성
- 통합교육의 원칙과 방법
- 장애 유형별 특징
- 장애학생의 교수방법
- 치료교육의 실습과정
- 담임교사와 상호 관계
- 발령예정자에게 담당할 장애아동의 특성 및 응급조치

##### 3) 관리

- 담임교사가 직접 관리한다( 관찰, 업무지시, 평가)
- 근무평정 척도표와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 자기평가
- 담임교사의 평가
- 부모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학교의 관리자가 결정한다.

#### 5. 보조교사의 법률적 배경

- 장애학생의 안전등의 문제 발생 시 학교의 관리자의 책임 하에 둔다.(학교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지도, 담임교사와의 대화 필요)

#### 6. 예산 확보

- 국고에서 확보하여 지원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많다.

## II. 결론

통합교육의 적합한 실행과 성공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사회 전반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교육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수용되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우선되어야겠고, 과밀학급, 과중한 업무, 다양한 학습형태와 학습량 등에서 물리적 통합만이 아니라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교사제를 도입하여 담임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및 전반적인 학교에서의 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도울 수 있게 한다.

### 참고문헌

- 김성애(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 현장특수교육. 국립특수교육원.
- 이소현·박은혜 (1998).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안승숙. (2002). 특수학급교사와 통합학급교사간 협력 정도와 일반아동의 장애아 수용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박승희. (1994). 통합교육의 여건 조성. 한국특수교육학회 편, 한국특수교육의 발전과 제. 서울: 한국특수교육학회
- 이소현. (1999). 장애아동의 사회적 통합-일반학급 교사들을 위한 제언. 통합교육론. 인천교육대학교.



#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향과 과제

토론  
발표

정 동 영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연구관)



##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향과 과제

정 동 영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연구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를 정책과제로 부여하고, 지난 3월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03-07)」에 그 도입 계획을 포함한 후,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그 동안 양적 발전에 중점을 두어왔던 우리 나라 특수교육이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이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는 제시되는 의견들을 청취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이 토론회에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 논의 정리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에 임하면서, 특수교육보조원제의 운영방향과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방향

발표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는 토론자는 발표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발표자가 추구하고 있는 통합교육이 하루 속히 실현되어 장애학생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토론자는 먼저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특수교육보조원제의 운영 방향을 언급한다.

첫째, <sup>시각적</sup>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한 의문이다.

토론자는 평소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란 장애학생이 충분히 지원을 받는 교육(supported education)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통합학급과 장애학생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라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설비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물리적 지원과 일반교육 교원 및 일반학생과 그 부모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라는 심리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에 다양한 인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 지원은 일반교육 교사 외에 특수교육 교사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조하는 인력도 포함 되어야 하고, 통학을 위한 인력도 포함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을 위한 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토론회의 주최측과 발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이 모든 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용어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이란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원할 유급의 특수교육보조원이다. 따라서 토론자는 토론의 주제를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확대할 때는 다른 지원인력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혼란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며, 토론자의 토론은 특수교육보조원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힌다.

둘째, 발표자는 특수교육보조원제의 도입 유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다.

발표자는 특수교육보조인력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서도 '학교가 통합교육을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인력의 투입만을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통합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의 정착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교사를 일반교육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발표자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주장은 특수교육보조원제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상황에서 통합교육 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과감하게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교육 환경을 제대로 구비한 후 통합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토론자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동시에 함께 시작해야 함으로써 힘차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 인적자원부에서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03-07)」에 통합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특수교육보조원제 도입 외에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교사 및 치료교사 배치, 일반교육 교사들의 특수교육 연수 확대, 일반학생들의 장애체험활동과 장애인시설 참관활동 실시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통합교육을 특수교육과는 별도의 분리된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발표자는 '보조인력이 일반학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장애학생만을 위해 활동한다면 그것 역시 특수교육 차원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인가? 특수교육은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어 오면서 segregation, mainstreaming, inclusion의 틀을 지녀왔다. 통



합교육은 특수교육의 하나의 틀이다. 물론,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이 이전의 분리교육이나 mainstraming 교육과는 달리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라는 이중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주장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토론자의 이 주장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장애학생만을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학생만을 위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일반학생들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때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도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주 역할은 장애학생을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이 장애학생만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일반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 활동한다고 규정할 때, 과연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특수교육보조원의 주 목적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보조원이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학급에만 배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발표자는 '특수학급에서의 보조인력의 활동은 특수교육의 지원이지 통합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통합학급에서 일어나는 활동 지원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는 통합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이겠지만, 토론자는 특수학급의 교육과 특수학교의 교육을 위해서도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합교육이 계속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교육은 교육과정 운영 모형 등에서 학교교육의 개혁에 중요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도 결국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교육의 모형이 그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로 인하여 교사 혼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는

곳들도 많다. 따라서 토론자는 특수교육의 장(場)을 크게 통합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로 보고 그 각각의 장면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사를 위해 배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을 위해 배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발표자는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 교사와 일반교육 교사.....(중략).....모두의 보조인력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사를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사를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안점은 장애학생의 지원 내지 보조에 두어져야 교사의 보조가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교육 보조교사' 대신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용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조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학생의 지원보다 교사의 보조에 더 많은 비중이 두어진다. 그래서 장애학생보조원이라는 용어도 고려했지만, 용어가 자아내는 편견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통합교육보조원이라는 용어도 고려되었지만, 통합학급이라는 한정된 장면에 배치되는 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 2.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과제

특수교육보조원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많다. 우선 이들의 도입이 현재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도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도입을 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운영과제들을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보조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점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표자의 주장과 같이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교사의 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특수교육보조원제의 도입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는 이전과 달리 민주화·분권화·자율화된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제대로 입안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다. 관계자들의 이해를 토대로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그 정책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3월과 지난 7월에 발표한 특수교육보조원제 도입방안에 대해 특수교육관계자들의 분명한 의견일치를 요구한다.

둘째, 특수교육보조원제를 도입한다면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의 운영형태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방법과 배치방법의 모형이 된다.

2002년 8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교육청과 시의회가 협력하여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활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대는 지방화 시대로 학교·학급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도에 이양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인천광역시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방법과 배치방법이 현재 당장 특수교육보조원제를 도입하는데 모형이 된다는 이유는 이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통합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모두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용직이 아닌 다른 직급으로 이들을 고용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 정원의 확대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더라도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지원과 배치 모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특수교육보조원제의 도입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발표자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통합교육의 목적들을 달성하게 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을 지적하고 있다. 토론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어떤 제도의 도입에나 역기능과 순기능은 존재한다고 본다. 역기능을 너무 부각시켜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역기능을 두려워하여 도입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우리에게 특수교육을 하면서 역기능을 충분히 해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보조원제를 도입하는 경우 역기능을 줄일 장치를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 하나의 방법이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훈련과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하는 교사의 교육 훈련이다. 그러나 토론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훈련 및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되' 라는 발표자의 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중략).....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을 수 있고,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community-based support)을 위해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과 훈련도 여기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고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된다. 일본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일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의 특수교육 연수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3. 맺는말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되고 효율화되길 기대하며,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를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의 하나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제의 도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수행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 결과와 특수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까지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모형을 시범 적용한 후, 그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2005학년도부터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효율화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03-07)」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하나이다. 이 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의견 제시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맺고자 한다.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제 역할 및 훈련에 대한 토론

토론  
발표

이 미 경

(새천년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제 역할 및 훈련에 대한 토론

이미경

(새천년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오늘 토론의 주제인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사회적인 의제가 되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른 데에는 토론회의 주최측인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특수교육관련 단체 및 특수교육 학부모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장애인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일반인들과 차별 또는 구별됨이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2001년 국립특수 교육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에 따르면 장애아의 출현율은 2.71%이며, 3~17세 학령인구 990만명



가운데 24만명이 장애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학급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생 15만명을 제외하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은 9만 5천여명이며, 올 8월 현재 전국 136개 특수학교와 3,953개 특수학급 및 20,119개 통합학급에 5만여명, 일반학급에 3만여명 등 총 8만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통계수치라면 1만3천여명은 교육에서 배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도 교육 혜택에서 배제된 장애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특수교육의 세계적 흐름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이른바 '통합교육'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과거와는 달리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이유로 현실에서는 많은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가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이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보조원제는 우리 교육의 현실, 즉 특수학교 교사 또는 특수학급 교사 1인에게 맡겨진 과도한 수의 학생으로 초래되는 낮은 질의 교육문제와 발생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의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방향이 통합교육이고, 학교가 통합교육을 위해 적절한 구조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원의 투입만을 생각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사실 장애학생이 통합된 일반학급에서 일반교사 한명이 장애학생의 독특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어떤 경우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및 과잉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학교시설, 교육내용, 특수교사 양성 및 배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보조원제보다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밝히겠지만 저는 완전한 형태의 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보조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서 보조원제를 도입하고 있고, 이 제도에 의해 많은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여러 특수교육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으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안(03~07)에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단위로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인력, 유급고용인력, 교육도우미 등의 형태로 이미 보조원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2,640여명 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 8월까지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9월부터 특수교육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12월까지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적용한 이후 2005년부터는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배치는 2002년 4월 현재 특수학급 설치학교 3,108교를 대상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에 대해 일용직원으로 채용해 배치하되 2004년까지 750명을 채용하



고, 2005년부터 연 500명씩 확대해 2007년까지 5,250명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80억여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수교육 보조원제는 완전한 형태의 통합교육 단계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통합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본인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사회적 편견이 심한 속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만 해주면 '함께 할 수 있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 정도만 심어줘도 편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수교육 보조원제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시급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일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도우미, 또는 공공근로자 및 교육부의 발전계획안처럼 일용직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에는 그 한계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

보조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좀더 명확한 연구와 시민단체의 의견 등이 수렴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그 직업에 대한 애정 및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자로 할 것인지, 특수교육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확보를 전제로한 대학 학력이상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보조원의 자격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원의 역할을 단순히 장애아들에게만 한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통합교육 속에서 일반 학생들까지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 보조원에 대한 교육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향후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먼저

법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분 및 역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 내년도 보조원 도입에 따른 예산이 지방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고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고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법규정 마련도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

밀알복지재단 /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걷는길벗회 / 희망교육연대 / 하상장애인복지관

(137-843)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02)521-5364 / 전송 (02)584-7701

[www.cowalk.or.kr/integration](http://www.cowalk.or.kr/integration)